

한국 대학생의 가족주의 변화 : 성별 격차를 중심으로¹⁾

김 혜 영*

근대화, 산업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감소와 단순화, 그리고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혈연에 근거한 강한 결속의식과 가족중심성은 한국의 대표적인 집합주의적 특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시장자본주의의 확대는 급속한 사회의 재구조화 과정을 촉발하였고, 이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경쟁과 노동시장의 압력은 한국 가족문화의 토대인 가족주의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사회의 생활양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대학생들의 가족의식을 통해 한국가족주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주의와 평등주의적 가치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족주의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 실질적인 부양행위자로 규정되어온 여성의 가족의식이 더욱 크게 변화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둘러싼 남녀의 갈등이 예상되고, 이는 곧 가족의 안정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청년세대에게 있어 새로운 성역할 규범 및 미래지향적 가족모형의 도출은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I. 머리말

흔히 '압축적 성장'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과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행위의 강력한 준거틀(reference frame)로 작용한 것은 바로 가족의 강한 응집력과 연결망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주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족주의는 혈연중심의 가족의식이 배타적으로 표출됨으로써 사회적 분열과 가족이기주의라는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가족주의는 개인의 확실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속화된 세계사회의 기술변동과 시장자유주의의 확산은 개인들을 유례없는 사회적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보급은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치열한 사회적 경쟁은 점차 개인주의화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와 평등주의는 여성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 이 연구는 두뇌한국(BK21) 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이대 BK21 연구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곧 전통적 가족주의에 입각한 가족 행위와 가족책임주의를 숙박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중심주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사회변동이 그렇듯이 현대의 가족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면서 가치기준에 따른 뜨거운 논쟁을 수반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혼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출과 맞물려 출산력의 약화, 이혼 및 재혼의 증가, 가족크기의 감소, 미혼모 및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은 아동의 양육과 노인부양이라는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시되어 왔다. 반면 이러한 가족변화를 '가족위기'로 해석하기보다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주장도 있다. 요컨대 현대가족의 다양성을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적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된 결과로 이해하여 이를 사적영역의 민주화로 해석하거나(Giddens, A, 1995), 여성지위의 신장 및 선택권의 확대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가족형태로의 이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Skolnick, 1991). 가족변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무엇을 가족의 위기로 볼 것인가, 혹은 가족전체와 개인 가운데 누구의 권리와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가의 사회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발생원인은 물론 해결책 또한 가치기준의 차원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족변화를 가족해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후기 산업사회의 전형인 다양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변화에 대한 거대담론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이론적 논쟁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기저에는 반드시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식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논의의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근대적 사회질서 속에서도 혈연의 '情'이 강조되고 여전히 가족의 가치가 사회윤리보다 우선되는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외형적 변화만으로는 가족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예컨대 현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다수라고 하여, 한국의 가족을 서구와 동일한 핵가족문화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경제적, 정서적 교류가 빈번하고 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의 형태는 핵가족이지만 사실상 가족 삶의 내용은 직계가족의 가치와 생활문화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 스스로가 부여하는 가족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가족생활문화를 둘러싼 가치기준의 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의식 연구는 가족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그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청년집단은 아직 자신의 산출(생식)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기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중립성은 이들로 하여금 전통적 가족주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이들이 정보화, 세계화로 요약되는 현재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연구를 통해 향후의 가족규범과 생활문화의 변화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II.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의식 :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한국사회의 가족연구는 대체로 산업화에 따른 가족변동, 소위 '산업화와 핵가족'의 명제를 검증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에 70년대 이후 가족변화에 관한 논의들은 단순히 가구구성의 변화를 핵가족화 현상으로 이해해 왔다. 물론 한국사회의 가구구성의 변화는 규모의 단순화, 소수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면서 형태의 다양성이 눈에 띄게 증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주로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에 기초하여 출생자녀수의 급속한 감소²⁾에 따른 가족의 소규화와 3세대 가족의 감소 및 1,2세대 가족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가족주기의 근대적 변화에 근거하여 한국가족의 핵가족적 형태로의 이행을 주장해왔다(권태환 외, 1995: 공세권, 1990: 최재석, 1982).

그러나 최근 들어 가족의 외형적, 형태적 변화를 해석함에 있어 의식과 행위를 포함한 내용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장경섭, 1993: 장현섭, 1993: 한남제, 1997). 요컨대 한국가족은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핵가족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가족변화는 형태의 변화만을 지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변화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구조상의 외형적 변화가 가족의식과 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적 변화와 상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인구학적 자료분석

2) 가구구성원의 수는 1975년 평균 5.0명에서 85년 4.1명, 90년 3.7명, 95년 3.3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 역시 1975년 4.5명에서 1999년 1.4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을 통해 가족형태의 변화추이를 추적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지 이러한 분석은 가족생활의 일면만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과 같은 가족 내적 요소들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제한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것이다(이재경, 1999:61).

더욱이 근대적 가족형태로의 이행을 뒷받침해왔던 주요 경험적 근거인 인구학적 통계범주가 개념적으로 대단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의 변모만으로는 정의적 속성이 강한 가족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핵가족론의 적실성은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물론 핵가족론에 대한 비판은 서구에서도 가족사적 논의와 여성해방론에 의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가족을 핵가족으로 획일화하기 어려우며 핵가족이 서구의 보편적인 가족형태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억압을 은폐하는 하나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고 비판해 왔다(바렛 & 매킨토시, 1995).

이러한 문제의식에 힘입어 가족성원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김규원, 1995; 박부진, 1996; 옥선화 외, 1998; 이재경, 1999). 무엇보다도 이들은 가족생활의 당사자들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가족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의미부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체로 가족적 삶의 내용을 밝혀주는 연구들은 형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가족의 내용은 전통적인 가족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가족개념과 범주 및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족관계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가족의 특징은 혈연중심의 근친 지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지속성, 강한 가족부양의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핵가족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근대적 가족의식으로의 변화가 미미하고 때로는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가족의 특수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규원(1995)은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의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 가족형태를 고수하는 경향이 농후하며 가족의 인지기준으로 혈연성, 동일거주, 부계원칙이 여전히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 전체의 안녕과 이익이 개인의 그것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정하는 가족 중심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규원은 가족생활과 관련된 양가적인 가치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선택이 가족 중심적 가치와 성평등적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가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주요한 가족가치인 가족주의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한국가족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옥선화(1986; 1990; 1998; 2000) 역시 전통적 가족주의 원리가 여전히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물론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부계 중심적인 직계외식의 보수성이 약화되고 근대적 결혼가치인 부부 중심성, 애정중시의 태도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계 혈통적 직계가족이 주요 가족범주로 인식되며 전통적인 성별분업과 강력한 부모자녀의 유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족의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의식적 특성은 성별과 지역(농촌과 도시)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친족구조의 범주가 근친중심으로 축소되면서 동시에 양계적 특성도 일부 나타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전통적 가족가치와 친족관계를 해체할 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중산층 여성의 경험을 통해 한국가족의 특성을 근대적 변형으로 이해한 이재경(1999)은 질적 연구를 통해 가족개념의 이원성과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여성의 가족의식은 대단히 유동적이어서 때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에 저항하거나 지지하며, 이념적으로는 핵가족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혈연중심의 직계가족의 범위 내에서 지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유지에 기여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부부중심의 결혼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여전히 배우자의 애정적 역할보다는 성 역할에 근거한 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며, 친족관계에 있어서는 시대와 친정 모두를 고려하는 양계적 형태를 지향하는 등 다소 모순적이고 이중적 특성을 함유하지만, 결정적으로 애정에 근거한 부부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재경은 한국가족이 근대적 형태로의 재구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가족가치와 의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 가운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전통적 가족가치의 하나인 '효의식'과 '부모부양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 에 대학생의 가족주의와 부모부양의식을 연구한 이은경(1999)은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적 가치지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여주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족중심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형제자매 및 친척간의 사회경제적 유대를 강조하는 집합주의와 가족우선성 및 부모공경의식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가족중심의 가족주의적 성향이 낮은 반면, 연령이 높고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할수록 부모부양의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관계의 중심은 여전히 부모-자녀관계로 보고 대학생의 효의식을 연구한 최정혜에 따르면(1997), 대학생들의 효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주의가 높을수록 효의식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허훈, 1988; 조미숙, 오선주, 1999).

연구대상과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식의 변화를 추적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의식으로서 가족주의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소 근대성을 보여주거나 전통성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한 문화적 규범으로서 한국인의 가족생활과 가치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가족주의와 가족의식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시도하기보다는 전통적 가족의식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가족주의를 사용하거나 가족의식, 가치를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해 왔다. 따라서 향후의 논의에는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근대적 정치경제체제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의 영역에서 전통적 가족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관한 인과적 설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

III. 연구방법과 연구절차

1. 연구절차와 자료수집

대학생들의 가족의식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계량적 접근방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밟아 왔다. 연구목적과 연구관심을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질문지 구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한 가족과 복지 관련 문항들을 색출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과 기존논의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질문 문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하여, 2000년 7-9월부터는 유관 연구자와의 수 차례에 걸친 회의진행을 통해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문항수정작업이 사전연구가 10-11월에 이루어졌다. 확정된 질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는 2000년 11월 12-16일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에 걸쳐 한달 간 실시되었다.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4개 대학의 학생들을 일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표집 하고자 일차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명부를 확보하고, 명부에 나타난 대학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학의 특성에 따라 일반대학, 여자대학, 특수대학과 전문대로 4분류하였다. 각기 분류한 대학 집단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여 각 집단마다 명부의 마지막 3번째를 선정하는 체계적 층화표집의 방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대학은 일반대학 8, 여자대학 2, 특수대학 3, 전문대학 3곳이었으나, 조사과정의 어려움으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선정된 3개 대학 가운데 2곳, 특수대학의 경우에는 1곳이 제외되었다.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이 전공별, 학년별, 성별로 고루 표집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공통 교양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표집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관련 과목 담당교수들의 배려와 양해를 얻어 할애된 수업시간을 통해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투입되었고,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기 응답식으로 만들어진 질문지를 배포, 수합하였다. 연구기획 시점에서는 선정된 1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과 학년을 망라하여 100명 내외로 계획되어 배포된 질문지는 1000부였으나 조사과정의 어려움으로 최종적으로 수거된 질문지는 910여 부이며, 이 가운데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훼손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850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개념정의와 측정도구

한국인의 전통적 가족의식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가족주의는 일상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 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로 이해되지만(김태길, 1982:),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최재석에 의해 체계화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가족주의의 특징은, 1)사회의 구성단위는 집이며, 2)이 집은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3)한 개인은 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4)집안의 인간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하의 신분서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5) 이러한 인간은 비단 가족 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의 외부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를 의미한다(최재석, 1976:23).

또한 사회집단으로서의 집은 단순한 건축물 이외에 현실의 가족집단,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관념적인 가족집단, 그리고 동족집단의 뜻을 내포하고 있

으며, 평가의 단위 역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근거한다(최재석, 1976).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한국 가족주의의 특질은 가족중심성, 세대를 초월한 가족의 영원성, 가족원간의 서열성, 부계혈연성, 그리고 가족주의의 외연적 확장으로서의 사회윤리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옥선화는 최재석의 논의를 서구의 이론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이를 몇 가지의 하위차원으로 설정하여 조작적 정의에 적합한 가족주의 척도를 의해 구성하고 있다. 옥선화는 이제까지 한국 가족주의의 실재 연구가 주로 전통적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측정해온 것으로서 가계계승, 조상숭배, 효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배우자 선택과 결혼관에 대한 연구로 대별하고 있다. 옥선화는 기존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가족주의는 5가지 차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³⁾, 최종적으로 13개의 문항을 통해 이를 추출하였다(옥선화, 1986:148-150). 그러나 이후 농촌가족 연구에서는 문항간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있다(옥선화, 1990).

최재석의 명확한 개념정의와 옥선화의 일련의 경험적 연구를 주요한 준거로 사용하여 본 연구는 가족주의의 핵심적 차원을 가족은 나의 세대를 넘어 존재한다는 가족의 영속성, 아들로 이어지는 가계계승과 남녀유별적 성위계관, 가족중심성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부계적 혈통과 남녀 차별적 위계구조는 동일 논리에 가깝다고 보아 두 가지 차원을 하나로 묶어 최종적으로는 3가지의 가치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3가지 차원에 포함된 각각의 문항은 예비적 연구의 내용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9개의 문항이 선택되었고, 이들 문항은 리커트 척도에 따라 5점으로 구성하였다. 각개 문항이 하나의 척도로서 갖고 있는 신뢰성은 신뢰계수인 cronbach α 값을 통해 검증되었다(전체의 신뢰도는 $\alpha=0.7951$, 차원별로는 가족의 영원성 $\alpha=.7642$, 부계혈통과 성차별적 위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가족의 가부장성 $\alpha=0.7657$, 가족우선성 $\alpha=.5806$).

가족주의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한 여타의 문항들은 가족개념과 기능, 결혼과 이혼관, 자녀의 의미와 효의식을 비롯한 부모봉양의식, 제사와 차례와 같은 가족전통, 끝으로 호주제와 부모성 함게 쓰기에

3) 5가지 차원의 태도에는, 1)부계 중심의 효와 조상숭배에 대한 지지, 2)가족성원 각자가 가족집단에 속해 있다고 두드러지게 느끼는 정도, 3)가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활동을 가족활동에 우선적으로 통합, 4)토지, 금전 등의 재화를 가족자산이라고 가정하고 개별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및 원조제공 의무에 대한지지, 5)부모와 결혼한 자녀, 그리고 성인형제자매간의 정신적 사회적 상호부조가 포함된다.

관한 것이다. 끝으로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주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등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문항은 별도의 척도구성 없이 주로 명목변인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로 표집된 대학생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대학생들의 성별분포는 여학생들이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이 과다 표집되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가 많은 탐색적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의 양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응답도중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중도 포기자로 분류되어 분석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경우가 남학생들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보호아래서 비교적 평탄하게 생활해 왔고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이며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구성된 선택지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응답식의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남학생에게 압도적일 만큼 남학생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은 이후의 연구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표집 과정에 여자대학을 차별적 범주로 구성한 것도 성불균형 표집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200만원 미만의 계층 34.3%, 200만원-300만원 36.0%, 300만원 이상이 29.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대체로 서비스 판매직이 가장 많아 31.7%, 전문직 종사자 및 고위관리직이 28.7%, 생산 및 단순노무자 17.9%, 사무직 14.1% 순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농부, 목사,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주부이며 (61.6%),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판매직이 가장 높아 20%를 차지하고 있어 직업지위가 아버지에 비해 낮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특성이다.

대학생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18-19세가 247명으로 29%, 20세가 190명으로 22.3%, 21-22세가 168명(19.7%), 23-24세가 20%인 170명이고 25-28세인 경우도 73명으로 약 8.2%가 된다. 이는 주로 남학생의 경우 군대로 인한 복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2-3년간의 사회 생활후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포함된 결과이다. 한편 전공별로 본다면, 사범대 및 상경대를 포함한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아 절반을 넘고 있으며, 의학계열을 포함한 자연과학계열이 대략 37%이며, 예체능계열은 6.7%로 과소 표집되었다.

IV. 대학생들의 가족의식 : 가족주의의 약화와 성별 격차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산업화는 사회문화변동을 수반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구적인 가치 역시 빠르게 유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영역으로서 가족은 원초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일차집단이기에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생활규범이 강하게 유지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즉 개인의 일상의식과 생활방식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가족생활은 거시구조의 변화에 일정부분 상응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강제력이나 외부적 힘에 저항하는 내부적 유지기제(maintenance system)가 상당한 정도로 작동되는 관성적 힘이 발휘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서구적 가치, 그 가운데서도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도시적 삶의 양식이 보편적인 삶의 기준으로 자리잡은 이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가족의식은 어떠한가? 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개인의 취향으로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의 가족의식은 과연 사회변화에 조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탈현대적 가치와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적 전통에 따라 전통적 가족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의 가족주의는 대체로 약화되었지만 이를 대치할 수 있는 근대적 가족의식으로의 완전한 이행 또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 가족주의의 약화 : 전통성과 근대성의 혼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족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족의 정의와 개념에 관한 질문을 던져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가족을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개념에 해당하는 혈연공동체나 동일한 姓의 공유집단이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는 미미하다(표1 참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모두 가족의 고유한 기능을 '정을 나누고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90.6%)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의 건강(46.2%)과 대화(41.7%)로 보고 있다.

표 1: 가족개념

(단위: 명, %)

내용	여학생	남학생	전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320(54.5)	138(52.5)	458(53.9)
피를 나눈 사람들	106(18.1)	69(26.2)	175(20.6)
운명공동체	78(13.3)	35(13.3)	113(13.3)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들	26(4.4)	5(1.9)	31(3.6)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21(3.6)	7(2.7)	28(3.3)
운명공동체	17(2.9)	7(2.7)	24(2.8)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들	12(2.0)	2(0.8)	14(1.6)
계	580(100.0)	263(100.0)	843(100.0)

대학생들의 이러한 의식은 현대사회에 올수록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가족의 유일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는 현대적 가족의식의 동조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가족학계에서는 가족을 통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주요한 기능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사회에서는 정서적 기능이 가족의 유일한 기능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를 물어보기 위해 '내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답하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응답의 결과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부모와 형제자매'로 응답함으로써 핵가족적 범위를 내 가족의 경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응답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대체로 동거의 범위와 가족의 경계가 일치하고 있거나 동거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결혼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까지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흥미로운 사실은 응답자의 약 11% 가량은 가족범주에 애완동물과 친구, 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및 이웃을 포함시키는 개방적인 가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곧 개방적인 가족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생식(산출)가족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들의 가족의식이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다할지라도 이러한 결과는 가족개념의 미분화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이러한 응답내용은 가

족의 개방성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증후로 이해되므로 연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표 2: 내 가족의 범위

(단위: 명, %)

내용	여학생	남학생	전체
부모+ 형제자매	320(54.5)	127(52.5)	400(50.6)
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조카	18(3.3)	9(3.7)	27(3.4)
부모+ 형제자매+친조부모	64(11.7)	31(12.8)	95(12.0)
부모+ 형제자매+외조부모	10(1.8)	-	10(1.3)
부모+ 형제자매+친조부모+외조부모	6(1.1)	4(1.7)	10(1.3)
부모+ 형제자매+친인척	115(21.0)	44(18.2)	159(20.1)
친구+이웃+애완동물+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기타	62(11.3)	27(11.2)	89(11.3)
계	548(100.0)	242(100.0)	748(100.0)

또한 응답내용 가운데, 대학생들이 가족으로 인식하는 가족의 범주가 부계와 모계 모두를 포함하는 양계보다는 부계혈족으로서 친조부모를 꼽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부계혈족으로 직계인 조부모만을 가족으로 꼽는 비율이 12% 가량임에 비해, 외조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1% 내외에 불과하며, 특히 남학생들 가운데는 특별히 외가를 지칭하는 경우가 한 사례도 없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들에게 있어 부계혈통이 우선적인 가족의 범주로 각인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녀의 의미와 선호 성별을 물어보았다. 먼저 자녀의 의미는 '부부사랑의 결실' 이거나(32.5%), '가족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28.6%), '자녀 키우는 즐거움'(23.6%)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대학생들은 가족구성의 제일 원리를 '사랑'으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이 재혼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경우'(69%)라고 응답하고 있어 '낭만적 사랑'이 가족형성의 핵심적 요건으로 간주되는 가족의식의 근대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의 부모·자녀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의 자녀관은 한 명의 자녀를 원할 경우에도 '아들 딸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5%로 성평등적 자녀관을 갖고 있으며, '효도의 가장 큰 의미'를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 것'(68.9%)으로 응답하고 있어 지속적인 유대를 통한 부모와의 연대감이 효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내가 잘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19%이며, 전통적인 효의 덕목으로 인식되어온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양(부모와의 동거 및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비율은 6% 내외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식의 변화는 가족화목을 위해 '가장의 권위와 가족의 순종(5.3%)' 보다는 '가족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분위기'(94.7%)가 필요하다는 진술을 대다수가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 있다. 요컨대 대학생들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평등성을 가족화목과 행복의 주요 덕목으로 인식하는 의식의 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들이 보여왔던 가족의식의 근대성은 부모 부양의식에 관해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부모의 부양의식을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전히 '자식들의 책임과 의무'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효의 의미는 변화했다라도 부모부양을 자식의 기본도리로 인식하는 전통적 효의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3 참조). 부모부양의 의지가 반드시 근대적 가족가치와 상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국가의 지원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이용 혹은 부모의 독립적인 거주와 부양방식에 대한 선택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효의식의 유제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한국 대학생들은 자식에 의한 부모봉양을 마땅한 도리로 여김은 물론, 부모부양 방식은 자신을 축으로 하여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가족책임주의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의 실천방법이 합리적이기보다는 전통적인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은 가족의식의 근대성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질은 가족생활을 둘러싼 제반 문제의 책임주체에 관한 응답 내용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표11 참조). 즉 가족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가족 안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은 곧 가족중심성을 핵으로 하는 가족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다만 경제적 부양과 일상적 보호에 있어 '자식공동의 책임'을 주장하고 부모와의 거주는 '자식들 중 아무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아들 중심인 전통 의식과의 차별성이 발견된다.

표 3: 부모 부양 의식

(단위: 명, %)

내용	부모와의 거주자	부모의 경제적 부양자	일상생활의 보호자
만아들	59(7.0)	72(8.6)	69(8.2)
만딸	7(0.8)	5(0.6)	6(0.7)
아들 중 아무나	40 (4.8)	14(1.2)	18(21.4)
딸 중 아무나	5(0.6)	5(0.6)	2(0.2)
자식들 중 아무나	518(61.7)	91(10.8)	138(16.4)
자식들 공동	-	544(64.8)	579(69.0)
스스로 책임(독자적으로)	154(18.4)	89(10.6)	4(0.5)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실버타운	55(6.5)	-	-
국가 보조금	-	-	23(2.7)
간병인또는 생활보조원	-	-	4(0.5)
계	838(100.0)	840(100.0)	843(100.0)

한편 자신의 노후관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본인들의 노후에는 부모와 달리 독자적으로 살면서 자신들이 비축해 놓은 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살아가겠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신들의 '효' 의식을 다음세대에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부양의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정작 자신들은 다음세대로부터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노후생활과 경제적인 자립을 이상시하고 있는 것이다(표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보호는 국가기관이나 복지시설에 의탁하거나 개인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식들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응답은 일차적으로 근대적 가족가치의 내면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기인하거나, 복지시설이나 국가로부터의 공공적 서비스 및 유료 실버타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미비한 결과로 추론해 볼 여지가 있다. 즉 이들의 이중적 태도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미비하다는 현실사회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거나 여전히 대학생들이 가족을 가장 안락한 유일 쉼터로 개념화하는 가족중심 의식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의 삶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대로 살길 원하면서도 일상적인 도움은 타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자식들, 곧 가족적 유대와 범주 내에서 일상적 보살핌을 기대하는 이중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표 4: 자신의 노후관에 관한 태도

내용	노후거주	경제적 부양	일상생활보호
만아들	27(31.8)	23 (2.7)	30 (3.5)
만딸	2 (0.2)	1 (0.1)	4 (0.5)
아들 중 아무나	8 (0.9)	12 (1.4)	9 (1.1)
딸 중 아무나	2 (0.2)	3 (0.3)	6 (0.7)
자식들 중 아무나	144(17.0)	48 (5.7)	123(14.5)
자식들 공동	-	181(21.5)	514(60.7)
간병인 또는 생활보조원	4 (0.5)	-	26 (3.1)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18(21.2)	33 (3.9)	135(15.9)
독자적으로(스스로 책임)	482(56.8)	540(64.2)	-
실버타운 또는 유료시설	162(19.1)	-	-
계	849(100.0)	841(100.0)	847(100.0)

한편 대학생들은 가족의 무게중심을 부부관계에서 보다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찾는 응답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약 60%).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응답은 이들 모두 미혼으로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가족문화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가정생활이 여전히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윤택림, 1996). 한국사회의 고유한 가의식이 家의 계승을 위한 것으로서父子관계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헌신과 투자로 가족지위를 재생산하기 위함으로 과거에 비해 아들과 딸의 차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가 부부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의 의식 역시 이러한 생활문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의식은 전통적 가의식인 가족주의로 이어지고 있는가? 전통적 가족의식의 특징인 가족주의는 무엇보다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집단의 단결과 영속화,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집단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주의는 통상 개인과는 구별되는 집합적 속성을 지니면서 개별성원 보다는 가족의 발전과 안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신념과 태도의 총칭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가족주의는 가족에 속한 개인의 일상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중심적, 가족우선적 가치와 생활방식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도 이를 반영하여 가족우선성과 영속성, 가부장성의 3차원이 포함하고 있는 가족주의를 측정해 보았으며, 측정 결과 대학생들의 가족주의는 5점 기준으로 2.7정도로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주의 가운데 가족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가족영속성만이 3점을 가까스로 넘고 있을 뿐 전통적 가족주의의 전형으로서 가족우선성과 가부장성은 2점을 상회하는 것에 불과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뒤의 표7 참조). 가족주의의 약화는 대학생들의 가족소득(f 값 = .227)이나 부모의 직업(f 값 = .148) 및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 값 = .537). 그러나 대학생들의 성별과 전공계열 및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표5 참조). 즉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그리고 연령은 20세 미만의 집단과 23세-27세 이하가 21-22세 집단보다 가족주의에 상대적으로 더욱 동조적이었다.

표 5: 대학생들의 연령, 전공, 성별의 차이와 가족주의

가족주의		평균(표준편차)	F 값(p-value)
연령 N = 838	18-20세	2.7256(.6097)	8.220(0.000)
	21-22세	2.5436(.6464)	
	23-27세	2.8077(.7306)	
	평균	2.7130(.6593)	
전공계열 N = 840	인문계열	2.6491(.6471)	14.135(0.000)
	자연계열	2.8254(.6674)	
	평균	2.7139(.6597)	
성 별 N = 841	남학생	3.0688(.6672)	46.808(0.000)
	여학생	2.5552(.5920)	
	평균	2.7121(.6594)	

: '매우 동의한다(5점)' '비교적 동의한다(4점)' '그저그렇다(3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전통적 가족주의의 약화는 결과적으로 가족태도에 있어 개인주의적 성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들의 실제적 가치선택이 평등 지향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것을 선호한다면 이들의 가치지향은 분명한 근대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문항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확실성을 상당히 유보시키고 있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화목을 위해 '가장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개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 가운데 응답자의 절대다수(94.7%)가 '개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가족전체와 개인의 비중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족 전체를 위한 '개인희생의 감수'를 약간 더 높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전체 위한 개인희생: 개인 존중(53.3% : 46.7%).

물론 이러한 특성은 한국의 가족생활 속에는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하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김규원, 1995; 김경신, 1998). 즉 대학생들 역시 가족생활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개인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이 강하게 피력되면서도 실제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전체를 위한 개인희생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는 이중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의 어느 영역에서 가족주의와 개인주의가 공존 혹은 특정의 가치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정밀한 개념적 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족의식의 성별 격차

사회변화와 새로운 문화적 조류에 민감한 한국 대학생들의 가족의식은 전반적으로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족주의와 확연한 단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성세대와 유사하다⁴⁾(이재경, 1999; 옥선화, 2000). 이러한 의식의 혼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근대성으로 수렴될 것인지 아니면 이중성이 한국 가족의 문화적 특질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향후 면밀한 연구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남녀 학생의 인

4) 예컨대 이재경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잘 나타나고 있다. 신중간계급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재경은 기혼여성들의 가족의식의 이중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이재경,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1999)

식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남녀학생들은 가족 개념을 위시하여 부모자식과 효의 의미, 가부장적 가족전통과 의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전통적 가족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주의까지 일관성 있는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가족 개념에 관한 성별차이

내 용	여학생	남학생	t 검증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4.6359(.6349)	4.6603(.5832)	-.548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다	4.4880(.7361)	4.6298(.6345)	-2.699*
가족은 운명공동체이다	3.8522(1.0636)	4.0077(1.0975)	-1.917
가족은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는 사람들이다	3.5508(1.0015)	3.4115(1.0563)	1.795
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3.6494(1.0570)	3.6255(1.0687)	3.017
가족은 경제적 공동체이다	3.9725(.8457)	4.0309(.8300)	-.936
가족은 같은 성(姓)을 가진 사람들이다	3.7069(1.1667)	3.7907(1.1715)	-.957

표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족개념에 대해서도 가족을 혈연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적 성향 역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주의 가운데 여학생들은 가족영속성의 차원에서만 3점을 가까스로 넘고 있을 뿐 전통적 의식의 전형인 가족우선성과 가부장성은 겨우 2점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가족의 영속성에 대해서는 약 3.47로 동의정도가 여학생들보다 높으며, 가족의 가부장성의 경우에는 남녀의 격차가 조차 훨씬 확대되어 남학생들은 3.05인 반면 여학생들은 2.297에 그치고 있다. 다만 모든 것에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족우선성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이다(표7 참조).

표 7: 대학생들의 성별과 가족주의 제 차원

가족주의	전 체	여학생	남학생	F값 (p-value)
가족의 영속성 (N=845)	3.1663(.8692)	3.0308(.8493)	3.4700(.8345)	48.685(0.000)
가족의 가부장성(N=843)	2.5281(.8365)	2.2970(.7235)	3.0502(.8493)	175.695(0.000)
가족 우선성 (N=848)	2.3987(.8233)	2.3509(.7797)	2.5057(.9060)	6.444(0.011)
가족주의 (N=841)	2.7121(.6594)	2.5552(.5920)	3.0668(.6672)	46.808(0.000)

: '매우 동의한다(5점)' '비교적 동의한다(4점)' '그저 그렇다(3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남학생들의 이러한 성향은 가족 전체와 개인에 대한 비중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학생에 비해 '가족 전체를 위한 개인희생'과 '가장에의 순종'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8 참조).

표 8: 평등주의와 가족 중심주의에 관한 성별차이

(단위: 명, %)

	여학생	남학생	전체
가족화목 위해 모든 성원을 동등한 개인으로 대우	567(96.6)	237(90.1)	804(94.7) ¹⁾
가족 화목 위해 가장에게 나머지 가족 순종	19(3.2)	26(9.9)	45 (5.3)
가족 개인의 의사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	287(49.0)	109(41.6)	396(46.7) ²⁾
가족 위해 어느 정도 개인희생은 감수되어야 한다	299(50.9)	153(58.4)	452(53.3)

1) $\chi^2=15.91^{***}$ 2) $\chi^2=3.95^*$, $***=p<.001$, $=p<.01$

또한 근대적인 결혼에 대한 지지율을 통해서도 남녀의 차는 쉽게 확인된다. 표9를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이혼과 새로운 결합으로서의 재혼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결혼관에 관한 성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근대적결혼관	여학생	남학생	t-value / p-value
결혼은 양쪽 집안보다는 두 당사자의 결합이다	3.8015(1.1421)	3.1092(1.1239)	8.197 / 0.000
자식이 있더라도 결혼생활이 고통스럽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3.9265(.9140)	3.4237(1.0827)	-6.979 / 0.000
재혼도 가족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다	3.9128(.7703)	3.7308(.8769)	-3.036 / 0.043

: '매우 동의한다(5점)' '비교적 동의한다(4점)' '그저그렇다(3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점)' '전혀동의하지 않는다(1점)'

이러한 차이는 가족전통과 제사, 그리고 효의 의미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의례와 제사는 물론 효의 의미에 있어서도 전통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가족전통, 제사, 효도에 관한 성별차이

(단위: 명, %)

항목	응답내용	여학생	남학생	계
가족전통은	가능하면 계속 지켜야 한다	44(7.5)	46(17.5)	90(10.6) ¹⁾
	지켜져야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번거로운 것은 수정해서 지켜야 한다	535(91.1)	204(77.6)	739(86.9)
	지킬 필요가 없다	8(1.4)	11(4.2)	19(2.2)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	74(12.6)	81(31.3)	155(18.3) ²⁾
	지내지 않되, 가족모임으로 기일을 기념하는것이 좋다	489(83.4)	164(63.3)	653(77.3)
	기일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23(3.9)	14(5.4)	37(4.4)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	420(72.8)	165(63.5)	585(68.9) ³⁾
	내가 잘 사는 것	111(19.2)	150(19.2)	161(19.2)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23(4.0)	22(8.5)	45(5.4)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	14(2.4)	20(7.6)	34(4.1)
	부모님께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	9(1.6)	3(1.1)	12(1.4)

1) $\chi^2=27.62^{***}$ 2) $\chi^2=44.36^{***}$ 3) $\chi^2=21.41^{***}$ * * * = $p<.001$

한편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상적 문제에 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도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11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응답경향은 정부와 가족을 일차적 책임주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특히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가족의 단독책임을 주장하는 비율이 더 높다. 그 가운데서도 노부모의 일상적 부양과 생활문제의 경우에는 가족의 역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은 이슈에 관계없이 정부와 가족의 공동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것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학생들은 근대적인 가족의식과 평등주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11: 가족생활관련 문제의 책임주체에 대한 성별 응답내용

(단위: 명, %)

항목	1차적 책임주체	여학생	남학생	χ^2 value /p-value
1) 영유아 보육	정부	65(11.4)	62(24.5)	$\chi^2=38.29/p=0.000$
	가족	89(15.6)	48(19.0)	
	정부+기업	42(7.4)	37(10.7)	
	정부+가족	202(35.4)	70(27.7)	
	기업+가족	15(2.6)	6(2.4)	
	정부+기업+가족	157(27.5)	40(15.8)	
	계	570(100.0)	253(100.0)	

항목	1차적 책임주체	여학생	남학생	χ^2 value/p-value
2) 노부모 부양(경제)	정부	37 (6.5)	28(11.3)	$\chi^2 = 25.52 / p = 0.000$
	가 족	88(15.4)	67(27.1)	
	정부+기업	16 (2.8)	8 (3.2)	
	정부+가족	293(51.4)	93(37.7)	
	기업+가족	11 (1.9)	3 (1.2)	
	정부+기업+가족	125(21.9)	48(19.4)	
	계	570(100.0)	247(100.0)	
3) 노부모 부양(돌봄)	정부	23 (4.1)	22 (8.9)	$\chi^2 = 32.00 / p = 0.000$
	가 족	170(30.0)	109(44.3)	
	정부+기업	10(1.8)	7 (2.8)	
	정부+가족	248(43.8)	67(27.2)	
	기업+가족	11 (1.9)	3 (1.2)	
	정부+기업+가족	104(18.4)	38(15.4)	
	계	566(100.0)	246(100.0)	
4) 생활문제 상담	정부	37 (6.6)	31(12.8)	$\chi^2 = 15.32 / p = 0.001$
	가 족	208(37.3)	102(42.0)	
	정부+기업	17 (3.0)	9 (3.7)	
	정부+가족	141(25.3)	44(18.1)	
	기업+가족	14 (2.5)	2 (0.8)	
	정부+기업+가족	141(25.3)	55(22.6)	
	계	558(100.0)	258(100.0)	

결국 이러한 의식의 차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부모성 함께 쓰기'와 '호주제 철폐'에 관한 질문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호주제 철폐'에 찬성하고 있지만, 남학생들은 오히려 호주제 존속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성 함께 쓰기'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상당부분 유보적이거나 30% 가량 찬성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오히려대다수가 '부모성 함께 쓰기'를 반대하고 있다.

표 12: 호주제 및 부모성 함께쓰기에 대한 성별차이

(단위: 명, %)

내용	여학생	남학생	전 체	χ^2 -value/p-value
호주제는	존속되어야 한다	195(33.2)	147(55.9)	$\chi^2 = 40.66/p = 0.000$
	폐지되어야 한다	380(64.8)	109(41.4)	
부모 성 함께 쓰기	찬성한다	179(30.5)	24(9.1)	$\chi^2 = 124.94/p = 0.000$
	반대한다	162(27.6)	178(67.7)	
	잘 모르겠다	245(41.8)	61(23.2)	

V. 결론 및 함의

다양한 하위문화가 끊임 없이 생성소멸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생경한 외래 문화와 일상적으로 조우하는 정보화, 글로벌 시대에서 전통사회와 같은 동질적 가족의식과 생활방식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의식이나 생활방식 역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계층과 세대 혹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가족현실을 창출해 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과 가치구조는 중층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다양한 문화적 선택지가 범람하면 할수록 회고적 삶의 방식을 문화적 원형으로 회귀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더욱이 가족제도는 여타부분에 비해 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와 이념체제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변화에 저항하는내부적 유지기제(maintenance system)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에 민감한 대학생들조차 전통적 가족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상당히 타당해 보인다. 가족의 범위를 핵가족적 경계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체의 일원으로서 사랑과 정서적 유대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가족의식은 다분히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와 동일한 의미에서의 개인 중심적인 가족의식과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대학생들은 가족주의의 특성인 가족우선성과 가부장성에 대해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식의 약화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가족주의의 약화가 적극적인 근대성의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모 부양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어 부모와의 동거는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일상적 보호 모두 자식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전체를 위한 개인희생에 대해 허용적이고 결혼을 당사자만의 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합성과 전통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족주의에 의해 일상적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문항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근대적 가족의식에 동조하면서도 가부장적인 가족의식에 대해 비판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식은 전통성과 근대성이 혼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가족의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논거를 갖는 것이다. 예컨대 이재경(1999)과 김규원(1995)의 연구는 연구대상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병존하면서 때때로 상충적이거나 때로는 조정과정을 통해 변형된 형태로 우리의 가족문화를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변화의 주도적인 세력으로서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의식의 혼재성은 곧 향후 가족현실을 규정짓는 주요한 규범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생활방식과 가치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정보사회에서 젊은 세대들이 갖는 가족의식의 혼재성을 단순한 한국의 특수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가족은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개인의 사회화가 최초로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효과적인 기제일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경제질서와 복지 인프라의 구축이 열악한 한국적 현실에서는 가족의 주요한 기능과 안정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질서에 조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족가치와 규범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중되는 경쟁적 질서와 사회안전망의 미비는 개인의 자아와 터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인의 보호기제로서 가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녀의 의식적 간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근대적 가족가치에 강하게 동조하며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가치를 거부하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전통적 가치에 대해 보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족구조가 단순화되고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가족구성인 당사자인 젊은 세대들이 남녀간의 의식격차는 곧 가족의 안정성과 응집성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남녀 의식의 차이는 상호역할 기대와 적응의 불균형성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러한 부조화는 결과적으로 가족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대면하고 있는 후발 자본주의국가인 한국이 쉽사리 서구와 동일한 정도의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질로 이해되어온 가족주의의 복지적 기능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물론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기반으로서 복지제도의 강화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원화된 욕구에 걸 맞는 선진적 복지인프라의 구축

에는 많은 자원과 오랜 경험적 시간확보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복지와 가족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족주의의 폐해적 속성이 제거된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제시하려는 노력, 즉 기존의 가족구조가 성역 압적이고 위계적이었음을 반성하고 평등하고 유연한 가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가족이 갖는 적극적, 긍정적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총체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가족원의 정서적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도 유연화된 성역할에 따른 역할공유와 자발적 참여가 확보된다면, 개인과 가족 전체의 행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족내적 조건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가부장적이고 개인의 희생을 미화시키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기관이나 상품화를 통한 복지수혜에 부정적이거나 수치로 여기는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가족을 통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족원들의 평등하고 유연한 관계를 통한 수평적 가족문화의 창출욕구 또한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족기능의 향상이나 안정성만이 강조되는 가족정책의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 요컨대 '가족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 만큼은 여성들의 자기희생을 더 이상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평등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는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창출하는 청년층에게조차 부모부양 및 효의식의 전통성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유념하고 이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갈등을 예고하는 남녀의 의식격차를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녀간의 합의적 의식형성은 21세기의 문화변동과 문화전통의 조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주요과제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평등성과 보살핌의 윤리가 공존할 수 있는 성찰적 사회로의 이행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정적 성역할 관념, 그리고 이에 근거한 가부장적 문화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성역할 규범을 근간으로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는 균형적 섹슈얼리티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 · 김태현 · 최진호(1995),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 논집*, 제7집, 한국가족학회, pp.213-255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10호, pp.145-160.
- 김태길(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 김혜영(1996),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대박사학위논문.
- 박광준(1995),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여성연구논집*, 부산여대 여성연구소, pp.101-118.
- 변화순 · 백경희 · 김현주(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안호용 · 김홍주(1999), "한국가족변화의 사회적 의미", *고대 한국사회연구소 제3회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 양옥경(2000), "한국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호, 한국가족복지학회, pp.70-99.
- 오선주 · 조미숙(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의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제4권 제1호, pp.67-89.
- 옥선화(1986), "가족주의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제3호, pp.143-170.
- 옥선화 · 김주희 · 박혜인 · 신화용 · 한경혜 · 고선주(1998), "가족/친족 해체와 재구성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11호, pp.157-182.
- _____ (2000), "가족/친족 해체와 재구성II: 농촌지역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0호, pp.157-180.
- 윤택립(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 이순형(199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간의 관계-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가을호), pp.545-573.
- 이은경(1999), "대학생의 가족주의가치관과 부모노후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호, pp.45-65.
-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제15권(2호), pp.55-85.
- 이정덕 · 김순옥 · 박허식 · 김경신(1999), "한국가족윤리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

- 학회지, 제37권 제6호, pp.23-38.
- 이혁구(1999), "탈근대사회의 가족변화와 가족윤리: 21세기 가족복지의 실천방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pp.219-242.
- 장현섭(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9집, pp.42-80,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장경섭(1993), "가족·국가·계급정치",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9집, pp.214-239,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조은(1999),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제27권 1호, pp.45-53.
- 최정혜(1997),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6호, pp.55-67.
-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9호, pp.13-24.
-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 허 훈(1988),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4(1), pp.89-106.
- Giddens, A. 1995,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배은경, 황정미 역), 서울: 새물결
- Gittens, D. 1997, 가족은 없다: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안호용, 김홍주, 배선희 역), 서울: 일신사.
- 바렛(Barret, M.) & 매킨토시(McIntosh M.)(1995), 가족은 반사회적인가(김혜경 역), 서울: 여성사.
- Cheal, D.(1991),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ronto Buffalo.
- Morgan, D.(1985),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en Paul.
- Skolnick, A. and J. Skolnick(1991), Family in Transition, New York: Little Brown.
- Zimmerman, S.L.(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Sage Publications Inc.

Abstract

The Changes in The Familism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Kim, Hye-Young*

Regardless of the external changes brought to today's families due to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uch as the decrease in the family size, the simplification of family structure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mily form, a strong sense of unity based on kin relations and the family-oriented characteristics has been still understood as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collectivism in Korea. However,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al society and the spread of the capitalism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ystem have ignited the rapid process of reforming society. And, the excessive social competition and the pressure from the labor market, following this process of reformation, have been rapidly changing the familism, the foundation of Korean culture of family life.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study the changes in Korean familism through the familism of the younger generations, the college students in particular, who tend to accommodate the life styles of the informational society the best. In this study, the great change in the familism of women, who are considered as the substantial family supporters in the patriarchal family culture in Korea, was noted as the individualism and the equality expanded rapidly among the group of young women. This study holds a great meaning for the society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different consciousness perceived by men and women regarding the patriarchal family valu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family stability. Women are shown to have developed a modernistic concept of family and increasingly adopted critical attitude toward patriarchal family culture. On the other hand, men are found to have strong patriarchal tendencies as well as consciousness well attuned to the traditional family. Thus, the deduction of new gender norms and the future-oriented family model rise as important projects to the young adult generation.

*BK21 New Governance Education-Research Team, Ewha Womans University